

[사회]

전남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최하위

1인당 예산 49만원...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광주·전남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인권보장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6일 발표한 '2008 전국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100점 만점에 52.9점으로 전국 평균치인 51점을 약간 웃돌았으며, 전남은 42.6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67.8점을 받은 제주도가 종합 1위를 차지해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고, 충북(64.5), 대전(57.9), 서울(54.2)

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경기(46.8), 울산(46.6)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인권·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67.9)로 조사됐고, 광주(28.7)와 전남(17.4)은 전국 평균(37.5)에 못 미쳐서 각각 11위와 16위를 차지했다.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수준도 광주(37.6)는 전국 평균(36.5)을 약간 웃돌았지만 전남은 25.7점으로 최하위였다. 장애인 복지행정·예산 영역의 경우 광주(53.1)는 7위, 전

남(41.0)은 15위를 차지해 예산 지원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77.8)는 장애인 교육영역에서 전국 평균(70.1)을 넘기며 4위를 차지했고 전남(68.9)은 12위를 기록했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도(84.4)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2007년 장애인복지예산 중 지방비 비율이 27.9%에 불과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서울(81.4%)과 큰 차이를 보였고,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 복지 예산도 49만7천120원으로 전국 평균(67만3천240원)을 크게 밑돌았다.



주부순찰단 발대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발대식'에서 주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북구 주민 787명으로 구성된 주부순찰단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동 범죄 예방은 물론, 도로 파손·불법쓰레기 투기 등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한 활동을 하게된다. /최현배기자 choi@

어제 31도 오늘 밤부터 비

26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은 고흥 31.4도를 최고로, 광주 31.2·순천 31.1·장흥 30.4도까지 오르는 등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았다.

27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5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오는 28일 오전에는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26일과 비슷하겠다.

조형래 곡성군수 사기 혐의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26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영농조합 법인의 회의를 조작해 법인 명의의 축사를 매각한 뒤 법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조형래(59) 곡성군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군수는 군수 당선 전인 지난 2005년 10월 27일 곡성군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S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의 축사 등 건물 8개동을 4억7천만원에 판 뒤 보증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조 군수는 2005년 10월 13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인 K 씨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회의를 작성하고 등기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군수는 후임 대표이사인 K 씨에게 자신과 부친의 소유 토지를 법인 명의로 18억원에 팔았으며, K 씨는 조 군수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8명의 채무자 명의로 각 1억원씩 18억원을 곡성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검찰은 조 군수가 법인의 18억원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부친·동생 등이 12억원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어 대출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수 재선거' 관련 돈 받은 2명 자수

지난해 12월 치러진 장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가 애초 진술을 반복한 데 이어, 또 다른 자원봉사자 2명이 선관위에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해오며 따라 검찰이 사실 확인작업을 받고 있다.

2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장성군수 재선거 당시 당선인인 이철 군수 캠프에서 활동한 A 씨 등 여성 자원봉사자 2명이 "이 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최근 선관위에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해왔다.

전남도 선관위 조사팀은 A 씨 등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A 씨 등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둔 상태다.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은 광주지검 공안부는 A 씨 등 신고자 2명과 이들이 지목한 금품제공자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끈적거리는 하루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5월 27일 (음 4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흐려져 밤부터 비	16~30℃
포항	흐려져 밤부터 비	16~25℃
여수	차차 흐려짐	19~26℃
완도	흐려져 밤부터 비	15~27℃
구례	차차 흐려짐	13~30℃
해남	흐려져 밤부터 비	13~27℃
남원	흐려져 밤부터 비	13~28℃
홍성	차차 흐려짐	16~28℃
영진	차차 흐려짐	13~30℃
진안	흐려져 밤부터 비	14~25℃
남원	흐려져 밤부터 비	13~26℃
전주	흐려져 밤부터 비	15~29℃
남원	차차 흐려짐	13~30℃
홍성	흐려져 밤부터 비	12~1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6:38 썰물 < 12:18
여수 밀물 < 01:22 썰물 < 08:01

▲해돋이 05:21 ▲해질 19:38 ▲달돋이 00:23 ▲달질 11: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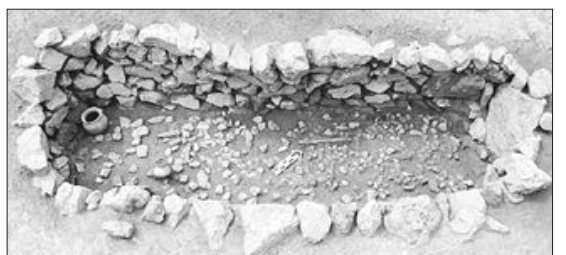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6/1(일)	2(월)
날씨						
최저/최고	19/23	15/27	15/26	14/25	13/27	15/25

여수서 가야계 집터·돌무덤 등 발견

여수지역에서 5~6세기 가야계 집터와 '돌덧널무덤(석곽묘·石槨墓)'(사진) 등이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인 (재)마한문화연구원은 26일 "지난 3월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 집터 30곳과 토광묘 7곳, 석곽·석실묘 19곳, 옹기 가마 1곳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원형 집터에서는 '긴 계란 모양 토기(장란형·長卵形)'(사진)와 물 등을 따를 수 있도록 토기에 주둥이를 만든 '주구(注口) 토기' '항아리 모양 토기(호형·壺形)' 등도 함께 나왔다. 또



방형 집터에서는 회색색 경질토기(硬質土器)와 가야토기가 발굴됐다.

돌덧널무덤에서는 감옥과 '동근 고리가 달린 칼(환두모·環頭刀), 화살촉 꾸러미 등의 철기류가 나왔다.

조사단 박미라 연구원은 "5~6세기 무렵 전남 동부지역과 가야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4년제 대졸 취업자 월평균 소득

수도권 195만원 > 비수도권 169만원

취업에 성공한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출신자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은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

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이 최근 제작·배포한 '대졸자 취업정보'에 따르면 4년제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95만원에 비

수도권의 169만원에 비해 26만원이 많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이 159만원으로 수도권(156만원)에 비해 3만원 가량 오히려 더 많았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87.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예체능계열(82.5%), 사회계열(79.4%), 공학계열(77.4%) 등 이었으며 자연계열(68.1%)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웅신

대학편입 김영웅에 알져라!

www.kimyoung.co.kr

6월 2일

김영웅 대학편입학원

흙 펴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한국의 땅은 40억을 번 이야기... 흙 펴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 060-700-3657

중흥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골드스파&리조트 골드레이크힐리지

☎ 060-700-3657